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시편: 139장 1~12절

후렴: (주여, 나를 살펴보시어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주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찌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찌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찌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찌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취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나를 살펴보시어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성경말씀: 빌립보서 2 장 2~4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중보기도:

모든 정치인이 정의와 참 지혜를 알고 올바른 일에 더 관심과 실천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나라와 모든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진정 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서 다 버리고, 빈 마음이 되고, 참사랑이신 주님만 갖고자 합니다.
오, 주님만이 제 소유요, 제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때만이 제 영혼이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오늘 하루를 무의미하게 지내면 내일도 모레도 무의미하게 지내게 됩니다.
내 일평생 수고와 역경을 돌파하여 살아온 것이 이 시간을 위한 것입니다.
하루가 귀한데 후일에 잘 하려고 미뤄갑니까?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144장 1~9절

후렴: (주여, 당신께 비는 이 그 누구에게나 주님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나의 반석이신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데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라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주여, 주의 하늘을 드려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흠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당신께 비는 이 그 누구에게나 주님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성경말씀: 스가랴 12 장 10과 13 장 1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찢은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
리로다. (...) 그 날이 오면, 샘이 터져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의 죄와 때를 씻어주리라.

중보기도:

삶과 평안의 보금자리인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 내
며, 삶의 모범으로 이웃과 세상을 변화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어 진리의 빛을 비춰주소서.
그리스도는 사랑, 생명이니, 항상 믿음으로 묻고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모든 생명,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알아 선을 행하게 하소서.

(성금란)

오늘의 묵상 글:

“자, 일어나 가자.”(요한복음 14장 31절 참조)는 예수님의 결심입니다.
자식을 먹여 살리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성문화된 글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은 살이 녹아나고 피가 닳아지는 사랑입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시편: 119장 73~80절

후렴: (주의 자애가 나를 위로하게 하소서)

주의 두 손으로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나로 깨닫게 하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라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았으니라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 되나니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여 나로 살게 하소서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로 수치를 당케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법을 알리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자애가 나를 위로하게 하소서)

성경말씀: 로마서 8 장 35~39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중보기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며 책망하시는 내적인 역사에 성도들이 순간순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예 전심으로 힘쓰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 실천
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의 은혜로 주신 기회를 회피하는 이 자식이옵니다.
환난의 기회만 있으면 회피하였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환난을 도리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목적은 없어도 그저 움직이고 낳고 사는 것입니다.
우주의 목적은 우주를 창조하신 이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성이 밝아야 합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122장

후렴: (사람들이 주의 집으로 가자 할 제 나는 몹시 기뻐했도다)

사람들이 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몹시 기뻐하였노라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서 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주의 지파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려하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찌어다

내가 내 형제와 봉우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찌어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사람들이 주의 집으로 가자 할 제 나는 몹시 기뻐했도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14 장 16~18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꿀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혼의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니,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주님, 빈 마음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랑케 해 주소서.
빈 마음 안에 주님 오옵소서.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시편: 114장

후렴: (주는 바위가 샘이 되게 하시고 바위에서 샘솟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주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고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거슬러 물러갔나니라
산들은 수양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찜이며
요단야 네가 물러감은 어찜인고
너희 산들아 수양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놀은 어찜인고

땅이여 소스라쳐라 주의 면전에서
야곱의 하나님 그 면전에서
주께서 반석을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솟게 하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바위가 샘이 되게 하시고 바위에서 샘솟게 하셨도다)

성경말씀: 디모데후서 1 장 8~10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중보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이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뜻을 따라 복음전파 사역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제게 주어진 환경은
순경이나 역경이나 다 제 영혼을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될 것을 믿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사랑이 없으면 전쟁이요, 사랑과 용서와 희생이 있어야 평화입니다.

오! 사랑은 용서요 축복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요, 물이요, 피요, 죽음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요, 양보요, 저 주는 것입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2025년 10월 6일 월요일

시편: 15장

후렴: (주여,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 그 누구이리까)

주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속에 진실을 품은 사람이나이다

그 혀로 참소하거나 그 벅에게 행악지 않으며
그 이웃을 훼방치 않는 사람이나이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나이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찌라도 변치 않으며
높은 이자로 돈놀이 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자로다
또한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요동치 않으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 그 누구이리까)

성경말씀: 시편 27 장 8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중보기도: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살피며 모든 이에게 이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올바르게 실현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에 자비로 사랑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에도 달게 희생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침묵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주님, 저는 약한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한시 반시 놓지 말아 주시기만 바랍니다.
주님 주시고자 하신 구원의 잔을 거두지 마옵소서.
제게 모든 것 알려 주소서.
무엇을 주셔야 하실 것을 제게 꼭 필요로 느끼고 절감케 하소서.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119장 97~104절

후렴: (주의 말씀은 제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내가 주의 법을 묵상하기 때문이다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현명하니
주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온갖 악한 길에서 제 발길을 돌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함이니
내가 주의 법규에서 어긋나지 않으니
주께서 나를 가르치신 까닭이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말씀은 제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

성경말씀: 이사야 61 장 10~11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중보기도:

인도자이신 주님, 가정 또는 사회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로하시고 살피 주시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주님의 산 말씀에서만 삽니다.
말씀을 붙어 넣으소서.
제 속에 말씀을 붙어 넣어 주소서.
산 말씀으로 살게 해 주소서.
산 말씀에서 힘을 얻도록 해 주소서.
산 말씀이 저를 굳세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우리 심부름꾼입니다.
바오로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듯이 우리들도 물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어 놓으신 씨앗이고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도 소화 데레사 성녀께서도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물을 주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창설자는 확실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2025년 10월 8일 수요일

시편: 27장 7~14절

후렴: (생명의 땅에서 주의 복을 나는 누리리라 믿나이다)

주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바로 주를 생각하나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고 있나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주는 나를 받아 주시나이다

주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때문에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있으니
주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오직 주만 바랄찌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주를 바랄찌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생명의 땅에서 주의 복을 나는 누리리라 믿나이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10 장 41~42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중보기도:

자비하신 주님, 사회의 불평등 속에서 소외되고 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굽어보소서. 그들이 고단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공동선이 실현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제 허물 깨닫고, 남의 허물 상관 말고,
스스로 검비하고 사람들 실수를 관대히 보게 해 주소서.
아버지 앞에 자복케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참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랑이든 앞서서 하고 또한 희생도 앞서서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수고할 것이 없습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시편: 32장

후렴: (주를 바라는 이에게는 사랑으로 감싸주신다)

허물의 사함을 얻는 자 복이 있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속임수가 없고
주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하였더니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녹아났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리라고
이처럼 주께 내 죄를 아뢰었나이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 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찌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찌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에우시리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하지 말며
분별없는 노새 같이 되지 말찌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사랑이 넘치도다
너희 의인들아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 하리로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찌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를 바라는 이에게는 사랑으로 감싸주신다)

성경말씀: 로마서 1 장 16~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중보기도:

희망이신 주님,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부활의 빛이 그들 가슴을 비추어주소서.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은 단지 지나가는 한순간임을 깨달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용기를 얻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평화의 왕이시여,
성스러운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고통의 핏방울이
제 가슴속에 젖어들 때만 제 영혼이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 안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수억만 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받은 고집, 자존심, 다시 말하면 뱀이나 늑은 용은 하느님을 거역하는 고집이 있어 순종을 못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행복하고 마음을 비워야 성령이 오십니다.
거지라도 강통을 비워 놓아야 밥을 줍니다.
성령을 못 받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를 행복시키면 성령을 받는 것이고 자기를 고집하면 성령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알려주신 말씀, 김준호)

시편: 46장

후렴: (너희는 침묵하여 내가 하나님인줄 알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설령 땅이 뒤흔들리고 산들이 깊은 바다에 빠져든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성이 요동치 않으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환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주께서 소리를 발하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주의 행적을 불찌어다
땅에서 이룩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주께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리니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찌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너희는 침묵하여 내가 하나님인줄 알라)

성경말씀: 요한1서 3 장 1~3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중보기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도와주소서. 온갖 조롱과 수모를 이겨 내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헤쳐 나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뜻을 계시하시는 성령이여,
미리 아시는 하느님이여!
저와 동행하여 주소서.

앞으로 남은 때를 주님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일의 뒷처리를 주님께서 친히 홀로 하시기 바라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소화 데레사 성녀는 예수님의 사랑이 자비의 사랑임을 발견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면 너무 슬퍼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본능 덩어리입니다.
옳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살려 주시라고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정의에 바친 것이 아니라 자비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시편: 142장

후렴: (이 몸이 피할 곳은 오직 주시니 생명의 나라에서 나의 몫이십니다)

내가 소리 내어 주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주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 줄 사람이 없나이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명의 나라에서 나의 분깃이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오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오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 몸이 피할 곳은 오직 주시니 생명의 나라에서 나의 몫이십니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15 장 1~5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중보기도:

헝가족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소외되는 젊은이 또는 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족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세대 간의 이해 폭이 넓어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이나 제 것은 없애고 그리스도를 얻어야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오니
저도 주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선 당신을 버리고 저를 붙잡으셨으니,
저도 저를 버리게 하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종 되게 역사하심 빕니다.
성령의 지도 따라 움직여지이다.
성령의 감화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제 안팎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매일, 매시, 매사에 진보가 있어야겠습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115장

후렴: (이스라엘아 주를 신뢰하여라 주는 도우시며 방패이시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의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을 영광되게 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을 놔두십니까
그들 하나님은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나이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같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우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우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주를 경외하는 너희는 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우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주를 경외하는 자 모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주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주로부터 복을 받으리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께
하늘은 주의 하늘이며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네

죽은 자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스라엘아 주를 신뢰하여라 주는 도우시며 방패이시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17 장 16~19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중보기도:

지역과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 안에 있는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김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 속에
이 몸도 훨훨 타서 먼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은 울타리도 없고, 국경도 없고,
사랑의 평화가 있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참사랑에는 피가 흘러야 합니다.
참사랑은 피 없이는 다른 사람과 교제가 안 됩니다.
참사랑에는 살이 녹아납니다.
회개하고, 거듭나고, 정신을 차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시편: 45장

후렴: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리로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토록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위엄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오른손이 찬란한 위세를 떨치소서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며
주의 나라의 흠은 공평한 흠이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찌어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찌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찌라
그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하리로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되어 가는도다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고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의 뒤를 이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케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토록찬송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리로다)

성경말씀: 예레미야 7 장 21~24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니라.

중보기도:

인자하신 주님, 온갖 불의와 혼란이 기승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지켜주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의 지킴이로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맡겨진 복음을 충실히 실천하고 전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품속에 숨을 때만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된 신앙이면, 오히려 활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지금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신지요?
마음에 불만과 불평도 없고, 불안과 공포도 없습니까?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49장 13~20절

후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도다)

그들의 이 행위는 그들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그들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이나 소가 끌려가 죽고 말듯이
죽음에 몰려 저승으로 곧장 가리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리다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숨을 구하여
죽음의 구렁에서 건져주시리라
올바른 자가 그들을 다스릴지니
아침에 그 모습 사라지고 영원히 저승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찌어다
저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으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찌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토록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짐승 같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도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6 장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중보기도:

위로자이신 주님,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를 굽어살피소서. 소외된 이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도 주위의
소외된 이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주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죄를 질 때는 두려운 아버지이지만,
회개하는 아들에게는 피눈물을 같이 흘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해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주여! 상처에 우는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비의 심이(心耳)를 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그림지만 먼저 임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을 수 있는 심신(心身)의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그릇이 없으면 강 같은 평화를 주셔도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그릇은 무아요, 십자가요,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삼매(三昧)입니다.
오! 평화의 임이시여, 제 영혼 속에 평화의 씨를 심어 주십시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시편: 119장 105~112절

후렴: (주의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이 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나이다
내가 맹세하고 실천하려하나니
주의 의로운 법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여, 구하오니 내 입의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험에 놓여 있으니
주의 법은 잊지 않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니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았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유산을 삼았으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이 되나이다)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6 장 17~20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
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중보기도: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과 인내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증거를 보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의식주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십시오.
참으로 예수님을 거짓말이 없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오직 평화의 열쇠는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주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것뿐입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이사야 43장 1절) 라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품속에 숨을 때만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 집니다.

한 시간이라도 저의 육이 다시 살아나 주님 품에서 빠져나오면, 제 영혼은 두렵고 괴로워집니다.

주님의 절대 자비의 가슴만이 제 영혼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분께 드리는 고백, 김준호)

시편: 72장 9~20절

후렴: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엎드려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리로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그 주는 살아 계시고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로다
그를 위한 기도가 언제나 들려지고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땅에는 곡식이 풍성하고 산등성이에까지 넘치리다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 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리니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적을 행하시는 주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리로다 아멘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6 장 3~4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중보기도:

공정하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비리와 부정의 유혹을 떨쳐 내고 언제나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결론은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18. 아버지 품

하늘 아버지의 가슴은 넓습니다.
세상 누구 한 사람도 용납 못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속에 몸이 더럽혀졌을지라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마음이 해를 입었을지라도
그 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버지 가슴은 넓습니다.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는 있을 곳이 많다.”(요한14,2)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글 재편집)

시편: 121장

후렴: (내 구원은 오리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한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런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에게서로다

주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으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주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으리로다

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주께서 나가나 들거나 너를 지켜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구원은 오리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한테서)

성경말씀: 미가 6 장 6~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중보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깊은 깨달음으로 영적인 안목이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
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결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은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12. 회광반조(回光反照)

밤하늘에 달이 빛나는 것은
자력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달은 스스로 빛날 수 없습니다.
달이 어둔 밤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것은
해가 달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사람의 몸은 달과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빛이 나는 것은
하느님 은총의 결과입니다.
하느님이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시고
빛을 비춰준 때문입니다.
빛이 떠나면
어두움이고 죄 자체입니다.
우리가 빛나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는 동안 뿐입니다.

시편: 16장

후렴: (주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기를 주는 나의 주시라
주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나이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나는 결코 그 이름도 부르지 않으리로다
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주를 송축할찌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가르치도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리니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요동치 않으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편안히 쉬리다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두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나이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12 장 8~10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중보기도:

모든 성도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주님의 청지기로써 뛰어난 근면성과 절약 정신으로 얻은 부를 공공의 선을 실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선용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각각 자기들의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첫 계시입니다.
이 길만이 개인이나 모임이나 모든 인류의 평화의 길입니다.
이 겸손의 덕이 매일매일 제 삶 속에 스며들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60. 작은꽃(小花)의 삶

주님의 순전한 빛과 단 이슬을 양식 삼아 자라나는 소화여!
그대는 대자연을 수도처 삼고
주님의 손수 돌보심을 입어,
주님의 남은 짐을 지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준호 글 재편집)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시편: 111장

후렴: (주의 손이 하신 일들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 계명은 모두가 변함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케 하셨으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유산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그들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주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도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주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손이 하신 일들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 계명은 모두가 변함없도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18 장 6~8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중보기도:

보호자이신 주님,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살피 주시고, 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63. 영적 가난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느님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왜 모릅니까?
오직 마음의 가난만이
당신 영혼을 하느님 생명에 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당신은 왜 모릅니까?

시편: 124장

후렴: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에 있나이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께서 우리 편이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하였겠느냐
주께서 우리 편이 않으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 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니라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니라
우리를 그들 이빨에 씹히지 않게 하신 분이시라
우리는 주 주를 찬송하리다

우리 영혼이 새와 같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올무는 끊어지고 우리는 살아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에 있나이다)

성경말씀: 마가복음 1 장 16~18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중보기도:

이 땅의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슬한 난관에 부딪혀 패배주의와 상처로 가득 찬 청년 세대들이 복음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게 걱정이 있고 번뇌가 있다는 것은 다 불신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번민이 있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모두 제 탓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61. 작은꽃(小花)의 소원

주님의 작은 꽃이여!

너 비록 풀숲에 가려진 채로 꽃피우고 질지라도 서러워 말아요.

설령 저 화려한 장미와 백합은 사라지는 날이 있을지라도,

너 풀숲에 숨겨있는 소화는 이 땅에 보존될 것이다.

시편: 131장

후렴: (이스라엘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만 바라보아라)

주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내 눈이 높지 않나이다
나는 거창한 일들을 따라 나서지 않으며
주제넘은 일들을 따라 나서지 않나이다

오히려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여
젖은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도다
내 중심이 젖은 아이와 같이
이스라엘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랄지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스라엘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만 바라보아라)

성경말씀: 갈라디아서 1 장 6~10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중보기도:

장애인들을 위한 관심이 잘 활성화되고,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여, 받으소서.
저와 사람과 물질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나를 어쩔까도, 내가 남을 어쩔까도, 내가 물질을 어쩔까도,
다 주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62. 작은꽃(小花)의 기도

주님!
소화의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
새 꽃나무가 자라납니다.
세상 눈에는 아무런 볼품 없을지라도,
주님 이 꽃 한송이 한송이를 통하여,

사랑을 가득히 받으소서.

시편: 127장

후렴: (주께서 도성을 지켜 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리라)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리라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리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 잘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식은 주의 주신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으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도성을 지켜 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리라)

성경말씀: 요한복음 10 장 27~28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중보기도: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사회의 아픔과 갈등을 싸매고 치유하는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회개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사랑의 보혈에 항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고, 예수님같이 다시 나게 하소서.
그 뜨거운 은총의 사랑으로 성화되는 전 인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같이 되는 것이 소원이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천하에 별 일을 다 성취했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 못 받으면 허망할 것뿐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119장 65~72절

후렴: (주여, 올바른 깨달음과 지식을 제게 가르치소서)

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잘해 주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으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주는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으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그들 마음은 살찐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에게는 주의 입에서 나온 가르침이 좋나이다
수많은 금과 은보다 좋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올바른 깨달음과 지식을 제게 가르치소서)

성경말씀: 이사야 58 장 7~10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중보기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불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치유의 희망을 언제까지나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일에 주님의 심장으로 하게 하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일을 처리할 때
땅 위에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든
"아들아, 내가 함께 하리니 앞 일에 겁을 내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제가 목숨까지 버리고 영혼까지 버리고라도 주님 찾아 만나게 하소서.
저를 위한 것 다 버리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만나지이다.

시편: 135장 13~21절

후렴: (이스라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 노래하여라)

주여, 주의 이름과 이 영원하시나이다
주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이다

그것을 만든 자들도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주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주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주를 송축하라
주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주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주여,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찌어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스라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 노래하여라)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3 장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중보기도:

모든 성도가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오로지 자기 부정 속에 참 안식에 들어갑니다.
영혼의 참된 기쁨은 형제 자매의 잘못을 자기가 범한 것임을 깨닫고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죽어질 때만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따르라”고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더라면 얼마나 영광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잘 죽는 것이 인생의 큰 성공인 것입니다.

교훈과 행실만으로는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겸손이란 것은 자기의 뜻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장

후렴: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 채워드리리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주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주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고통이 하도 심할 때에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로다
귀하도다 주의 눈에 성도들의 죽음이여
주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주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을찌라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주의 궁전 안뜰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 채워드리리다)

성경말씀: 이사야 43 장 18~21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중보기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저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세상의 빛과 어둠을 가려내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열어 보이시려고 택하신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의 자비의 사랑, 그 은총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 은총, 그 사랑, 그 자애를 넣어 주시려고
골라낸 그릇 밖에는 부어줄 그릇이 없습니다.
주인이 쓰려고 골라온 그릇은 크거나 작거나 잘 생기거나 못 생기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택한 그릇은 잠잠히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그분 본질이 물이요, 빛이요, 흙이요, 바람이라면 만물은 임의 빛을 받아서 임의 본질을 마시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만물이 먹고 마시는 것은 그분의 빛이요, 물이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은 그분의 살과 피입니다.

임의 본질이 있다면 그는 자비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먹고 마시는 모두가 그분의 사랑을 먹고 자비를 마시고 삽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시편: 112장

후렴: (인자하고 자비롭고 의로운 사람은 어둠 속의 빛처럼 빛나리다)

할렐루야, 주를 경외하며 자는 복이 있도다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리니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여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주께서 영원토록 요동치 않나니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흥한 소식을 두려워 않나니
주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 원수의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주께서 재물을 흠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인자하고 자비롭고 의로운 사람은 어둠 속의 빛처럼 빛나리다)

성경말씀: 디모데후서 4 장 7~8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중보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사랑하게 해 주소서.
주님 기쁘게 해 드리고 슬프시지 않게 되기를 비나이다.
이 땅에 참 사람을 보내주소서.
마음 너그럽고 깨끗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내가 힘을 얻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손이 제 위에 있으면 됩니다.
선한 일이 뜻보다 더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시편: 119장 89~96절

후렴: (주여, 이 몸은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하소서)

주여, 주의 말씀이 영원하며
하늘에 굳게 든든히 세워졌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으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았나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으리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법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이 몸은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하소서)

성경말씀: 에스겔 3 장 10~11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중보기도:

위로자이신 주님,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저희 민족을 굽어살피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며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제 가슴에서 자비의 샘이 터져 강이 되어 흐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지신 보배 가운데 자비만이 주님의 유일한 보배이시니,
앞으로 제가 구하는 것은 그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제게 주신다면,
성삼위와 전 인류와 모든 영혼들에게
참 평화와 강이 흐를 것을 믿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결과가 있어야 제자가 됩니다.

참 배웠으면 결과가 반드시 좋고 많을 것입니다.

결과가 나쁘면 예수님께 잘 배우지 못한 증거가 됩니다.

거짓 제자가 될 것입니다.

시편: 138장

후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시작하신 일 주께서 이루시리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주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도를 노래할 것은
주의 영광이 크심이니다
주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찌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주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주께서 이루시리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시작하신 일 주께서 이루시리다)

성경말씀: 이사야 40 장 29~31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중보기도: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힘써 옳은 일을 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총으로 내리시는 성령의 성품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본질을 읽을 때,
제 영혼 속에 잉태된 그리스도의 성품이 기뻐 뛰나이다.
그 말씀들이 제 가슴에 스며들어
제 영혼이 항상 기뻐 뛰도록,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정치가나 군인에게도 주님의 신이 임하셔서 나라와 백성을 구원케하십니다.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개성을 존중히 여기고, 개인 신앙을 존중하고 펴놓하지 말 일입니다.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시편: 139장 13~24절

후렴: (나 주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누구나 그 행실에 따라 소행대로 갚아주리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라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찌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녕히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찌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으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않나йка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 주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누구나 그 행실에 따라 소행대로 갚아주리라)

성경말씀: 요한복음 1 장 29~31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중보기도:

평화의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어지러운 세계를 굽어살피시어, 온 인류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며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직 평화의 열쇠는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주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품에만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제 '얼'을 간수할 줄을 알아야겠습니다.
'얼'을 사랑하지 못 하고야 누구를 사랑하겠나이까?
주님 제가 제 '얼'을 사랑하게 해주소서.
제 '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여!
저로 하여금 제 '얼' 귀하 여기게 하시려고 죽도록 바라신 주님의 뜻 잊지 않도록 채찍질해 주소서.

시편: 144장 10~15절

후렴: (주는 영원히 진실하시나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잇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영원히 진실하시나이다)

성경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 장 6~8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중보기도:

주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뿌리를 두고 말씀의 양분을 먹고 자라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우리 피조물에게 참 축복은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히 희망이 있어야 하며 영원히 커야 됩니다.
만일 자신이 다 커버렸다고 여기면 그게 절망이 아닌가요? 그 상태가 고목입니다.
다른 무슨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희망,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달에 있어서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초승달에서 희망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보름달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초승달로서 구도하라.
항상 초승달로 머물러 있는 것이 희망이다.
그게 겸손이다. 겸손은 초승달이고 보름달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절망에 빠지고,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시편: 145장 14~21절

후렴: (주여, 당신께 비는 이 그 누구에게나 주님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시며
주의 통치하심은 무궁토록 거하시리다
주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당신께 비는 이 그 누구에게나 주님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성경말씀: 요한1서 3 장 16~20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중보기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인격적인 지도자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사람들이 저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님과 주님과 성령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늘 실수만 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해 주옵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햇빛을 받은 달은 그 빛을 발하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죄인은 성녀가 됩니다.
사랑하면 용서가 되지요.
용서하면 깨끗해집니다.
성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 성녀가 됩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용서해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